

4~5» 길게읽기-자치회비 들여다보기



8» 과일가게 '청춘 과수원' 사장 이상명 군



201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 예비졸업사정 시행 안내

1 대상자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 대상자
2 기간
가. 예비졸업사정기간 : 2016. 03.28(월) - 04.01(금)
나. 졸업대상자확인기간 : 2016. 04.04(월) - 04.06(수)
다. 예비졸업사정 최종결과 확인 : 2016. 04.11(월)부터



응용과학대학, 유럽항공우주국과 '천리안 2호' 개발 연구협약 체결

지난 21일 우리학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탐재체 연구실과 유럽항공우주국이 국제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주도 우주탐사사업에 대학교가 포함된 경우는 이번이 우리학교가 최초다. 사진은 개발중인 부품을 실험하고 있는 우리학교 천문대 지하 청정실 모습이다 (사진, 기사=양윤혁 기자)

Newsmaker

투명한 학생회를 만드는
최상현(경영학 2012) 군



“학생회 진심 통할 때까지 다가갈 것”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 매달 경영대학 로비에 학생회 임원단의 사진·개인번호가 게시된 대자보를 붙여 그 달 학생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이벤트를 열어 불편사항 모집창구를 홍보하는 등 경영대학 14대 학생회 '더함'은 신선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꾸려 학생사회에 새바람을 부르고 있다. 더함을 이끄는 경영학과 최상현(경영학 2012)회장을 만나봤다.

“1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불신을 채감했다”며 “그때 처음 학생회장이 돼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한 최 회장은 출마 당시 실제로 지인들에게 ‘학생회장 되면 돈 걱정 없어진다더라’라는 등의 편견 섞인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학생회 소셜미디어 친구등록 불편사항 제보 받아

때문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경영대학이 휴학생 포함 약 3,000명 규모로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단과대학인 데다, 단 두 가지 학부로만 나뉘어 있어 소통채널 형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오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기획 중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통한 불편사항 모집, 공식적인 각 반 반장 선출을 통한 소통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학생회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불편사항을 제보 받은 후, 그 해결 여부를 매달 대자보 게시를 통해 알리는 구조를 만든다

는 계획이 인상적이다. 소통체계를 강화하면 비난받는 일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은 없냐는 기자의 말에 “욕먹으려고 시작한 일이다”라고 답변한 최 회장의 진정성 또한 그렇다.

또한 그는 학생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영대학 학생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동대문구청에 등록할 예정이다.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학생회비 관리가 가능해지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1년 단위 추경예산을 공개해 학생회비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올해 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시 그는 ‘본래 학부 선배가 진행하던 행사에 전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를 초빙해 학생회비를 낭비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최 회장은 “올해 구상 중인 학생자치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 업체를 고르고 고른 끝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작년 대비 약 1,000만 원 가량 절감했다”며 “전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를 초빙한 것은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반응 또한 좋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사실 학생회 측에 직접 의문점을 말해줬으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해 당황했다”며 “아직 소통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느껴져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어떻게 하면 경영대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회 모두가 진심으로 임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설 학과 캠퍼스 위치 두고 ‘갑론을박’

학생회, 캠퍼스 이원화 역행 ‘우려’ … “귀가 막혔나” 부적절한 교무위원 발언 ‘눈살’

프라임 사업 준비위 최종 워크숍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둔 지난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는 조인원 총장이 주재한 프라임사업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부총장단, 미래정책원장, 서울/국제 준비위원회 위원, 학문단위 기획 TF를 비롯해 각 캠퍼스 학생대표도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프라임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보고가 있었다. 먼저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프라임사업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워크숍을 시작했다. 신 원장은 “우리학교의 미래전략과 프

라임사업의 방향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 효과 역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회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미래정책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은 정원조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김 부원장은 학문단위 조정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와 C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는 정원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원 증감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학과별 정원 증감 기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기초학문 분야는 감소됐고,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프라임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학과의 정원은 증가됐다”고 밝혔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부학장은 신설될 단과대학을 보고하면서 미래과학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부학장은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주제를 갖고 산학협력과 대학원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 신설될 단과대학은 이러한 연구와 산학 협력을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설될 단과대학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현실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을 통해 개편이 예상되는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생명공학원) 학장은 “바이오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신 의료기술이 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학장은 “2020년 정도가 되면 바이오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현재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을 통해 상업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백 학장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랙을 신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계획 보고가 끝난 후에는 구성원간의 논의가 있었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새로 신설될 학과가 편제는 국제캠에 있으나 위치는 서울캠에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3면으로 이어짐

타자의 얼굴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①

이은정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

타자(他者)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그는 먼저 자신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 나와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동시에 집단적인 결속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동

물이다. 때문에 인간의 폭력적 성향이 분출되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타자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성해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한 인간을 ‘개인’으로 파악하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인의 자유란 소유물 획득을 위해서 나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 달리 말하면, 타자로부터 나의 소유물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계약의 관계로 파악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유양식으로서의 실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시화와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사회의 심리적 특징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계산적 이성과 속내감추기라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나와 아무런 혈통이나 친분, 이해도 공유하지 않는 타자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정치철학의 아버지 토마스 홉스처럼 나의 소유물과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우리가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임형진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7면

